

‘하마스’ , 한국 기독교계에 말걸다

추태화 (기학연 실행위원,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1.

2006년 1월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실시된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하마스당이 승리를 거뒀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위시한 서방은 즉각 중동지역의 강경파 노선이 더욱 강화될 것을 염려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하마스(HAMAS)라면 이슬람과격저항단체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과 자살폭탄테러를 서슴치 않는 극단의 지하단체를 말한다.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저항단체의 공격과 자살폭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된 해외보도를 경험해 왔다. 그러한 사건의 주동자 역할을 한 이들이 정권을 잡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하저항단체가 공공연한 정치무대로 얼굴을 드러낸다니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다.

하지만 서방언론은 하마스의 두 얼굴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국제적으로는 하마스를 극우테러단체로 지목하지만, 그들이 10년 넘게 팔레스타인을 지배해온 파타당을 누른 것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 타당한 근거가 우리를 궁금하게 한다. 우선 집권당이었던 파타당이 그동안 무능과 부패로 팔레스타인 국민을 기만했다는 이유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생활고에 허덕일 때 파타당의 지도자들이 서방의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권력을 남용한 일들이 파타당에 대한 국민의 정서 이반에 한 몫했다는 것이다. 또한 억압받는 자 국민을 위하여 정권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국민들이 파타당 밖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마스의 승리를 인정하게 한 결정적 이유는 그러나 다른 데 있다. 바로 하마스가 행해온 선행에서였다.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국민을 위해 애썼다는 것이다. 그들은 학교를 짓고, 직장을 만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는 당리당락과 말로 남발한 공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몸으로 실천하여 구축한 신뢰에 있었다.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하마스를 선택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마스의 충심에 감복된 결과였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 선거였다.

2.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이 우리를 고뇌하게 한다. 그 생각의 발단은 이렇다. “하마스 같은 폭력저항을 일삼는 단체도 선행으로 국민을 감동시키는데 하물며.....”

하마스가 대외적으로 갖고 있는 무력저항단체의 이미지와 활동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 대내적으로 행했던 사회복지 활동과 신뢰를 언제까지 실망시키지 않고 계속할 것인가 하는 점 등이다.

우리는 나치 독일에서 정권의 무서운 변신을 체험했다.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국가사회주의자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독일국민, 세계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당이라고 입에 바른 소리를 해대었는지 모른다. 나치당도 실제로 독일 국민을 위해 아파트도 건설하고, 비교적 값싼 국민차(일명 폰텐이형 폴크스바겐)를 생산해 보급

하기 시작했다. 실업자도 구제하고, 인플레이션으로 불안한 물가도 안정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이 숨기고 있던 야수의 본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1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전쟁준비로 광분했고, 국민을 무시 무시한 견제와 감시의 경찰국가로 몰아넣었고, 유태인들을 희생양으로 내몰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음모했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치당의 본질을 당시 독일 기독교계나 세계 기독교계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들의 전략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었고 그들의 정략에 환호까지 보내었다.

하마스의 정체는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나치 독일의 선례와 같이 그렇게 돌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권을 장악한 다음 나치처럼 본래 의도했던 음흉한 무장테러가 시작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마스의 등장으로 중동의 역사가 격앙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마스가 내적으로 해왔던 복지정책을 더욱 활성화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갈급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에 세계 기독교계가 거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하마스가 폭력성을 다시 폭발시키지 않고 정당으로서 정치적 승부를 걸 수 있는 연착륙의 길을 기독교계가 함께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3.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하마스의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신뢰와 감동을 주었다는 점을 두고 고뇌한다면 한국 기독교에 뭔가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한국 기독교는 현재 정체성(停滯)의 위기에 머물고 있다. 성찰도 그러하지만, 사회적 리더십의 면에서 사회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언론은 기독교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눈치다. 열린사회를 지향하는데 교회가 마지막 대상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기독교는 반성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 “하마스 같은 단체” (필자는 수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도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어떻게 국민의 25%, 그리고 사회지도자의 상당수가 신앙을 고백하는 한국 기독교계가 사회적 공인에서 후퇴할 수 있단 말인가. 자성하는 의미에서 지적한다면 한국 기독교는 너무 자본주의화 되어 있다. 소비사회, 경쟁사회, 능력사회, 세속사회의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투입해 들어와 교인들을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이반시키고 있다. 즉 말씀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 “하마스 같은 단체” 도 가능케 했던 사회변혁을 천만 명이 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찌 할 수 없단 말인가. 기왕에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회봉사, 헌신은 하마스의 그것과 비교하자면 양적인 면에서 월등 우월한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현대 한국 기독교는 2000년 전 초대교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거리, 그 간격은 무엇인가 다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하마스의 선거 소식은 이래저래 크리스찬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한다.